

Abstract

**A Remark on the Significance of a Christian University in
the Korean Contexts**

By Yoon, Sang-Hun

(Handong University, Ph.D in Linguistics)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ree major beings, God, the world, the human dictates our human condition. Since the divine foundation of the human existence was denied, various forms of distortion & deviation have appeared in terms of transcendency or immanence during the existential process at each stage & period of the human civilization. Only the dynamic awareness of balance between transcendency and immanence will enable us to speak to the deformed world that has been preoccupied by transcendency and swallowed by immanence. I believe that universities and colleges which lie at the root of a Christian faith have something to say these days. Christian faith covers all domains of the human existence & condition. Otherwise, it is not an authentic one at all. The calling of Christian universities is to figure out the terrain map of realities & to make available ideological equipments and action strategies to change the overall topographical map. In other words, we are called to establish Christ-centered agendas on the human life.

In the Korean contexts, our Christian faith is considered

“decontextualized” rather than “contextualized”, losing the “awareness of realities” now & here. Reflecting on the role of Christian universities, I suggest that Christian universities should make manifest the presence of the Kingdom of God, functioning an avant garde for restoring the “awareness of realities”.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Christian worldview, 기독교대학 Christian universities & college, 한국상황 Korean contexts, 사유화 privatization, 축소된 기독교 reduced Christianity, 전위 avant garde, 소명 calling, 제자도 discipleship, 학문정신 scholarship, 형제애 brotherhood, 의제 설정 establishing agendas

I. 들어가며

미켈란젤로의 <성 마태오>라는 작품이 있다. 1503년 피렌체에서 계약서를 쓰고 매년 한 점씩 만들어 완성하기로 한 열두제자 가운데 첫 작품인데, 작업에 열중하던 중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급한 호출을 받고 끝내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이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미완성 작품을 통해 미술사가들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켈란젤로의 작업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조형식으로 조각을 하게 되면 돌덩어리의 여섯 면에 스케치를 하고 전후좌우로 작품 형상의 전체 윤곽을 다듬어 나가기 마련인데, 몸을 뒤흔 자세를 한 <성 마태오>는 놀랍게도 전혀 스케치의 흔적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한 미술평론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파묻힌” 한 사람의 형상을 보고 “돌을 한 겹씩 걷어내는 방식”으로 조각했던 것이다.¹⁾

미켈란젤로가 차가운 돌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보고 정교한 솜씨로 그 형상을 드러내었듯이 인간의 일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여된 의미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전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소명이 기독교 신앙적 관점으로 학문함에 닿아 있다.

아더 홉즈는 그의 <기독교대학의 이념>에서 사람이란 “가치 평가적이고 반성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있는 행위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교육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란 삶에 목적성과 기대와 겸손을 수반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 덕목과 이러한 영성이 보다 내재화되어 나타나는 도덕적 덕목, 그리고 정직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1) 노성두, “돌의 영혼과 나누는 불가사의한 대화”, 출판저널, 2000/1105, p.25

분석적이며 비판적인 지성적 덕목, 동시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자질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줄 아는 자각적(self-knowledge) 자질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 땅의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미래에의 창조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²⁾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세계의 질서와 작동 원리를 발견하고 선양하는 본질적 가치와 동시에 발견된 원리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응용하는 실용적 가치를 드러내고 진작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창조의 선한 구조를 밝히며 타락의 왜곡된 방향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의 소명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제 학문들의 이론과 실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왜곡되고 훼손된 인간의 실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사회적·문화적 조건들을 살핌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에 복무(engagement)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³⁾

II. 한국 상황과 (기독교)학교

2) 아더 홀츠, 기독교대학의 이념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1990), 박진경 역, p.42, 112~113.

3) 존 스토틀은 이것을 “이중적 귀기울임의 수고”라고 표현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성경적이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현대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는다는 면에서 성경적이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보수적인 동시에 급진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면에서 보수적이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 급진적이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스토틀 저, 한화릉, 정옥배 옮김, IVP)

구한말 자주적으로 복음이 수용된 후 기독교 선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교육이 민족자강의 차원과 더불어 개화의 시기에 절실한 문화적 욕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⁴⁾

당시 지도계층의 신교육에 대한 절실한 욕구는 고종황제가 1884년에 내한한 미북감리회 소속 일본주재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교육과 의료사업 실시에 대한 윤허를 내리고 1886년에 수업을 시작한 육영공원을 설립토록 한 이면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⁵⁾ 1885년에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가 경신학교를, 북감리회의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세우고 후에 경신 학교는 확장되어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로 설립인가가 난다. 1886년에는 미감리회의 여선교사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1897년에는 미국 북장로회의 베어드(배위량)에 의해 숭실학교가 세워진다.⁶⁾ 1907년에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가 남강 이승훈 장로에 의해 세워진다.

이만열 교수는 초기 기독교학교의 교육정신을 서구문물의 도입과 개화에 부응하는 공역적 목표와 성서교육과 기독교훈련의 내면적 정신이 함께 담기어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여 양식있는 한국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했다고 적고 있다.⁷⁾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과내용과 생

4) 이만열 교수는 자생적인 신교육 수용의 한 예로 개신교 수용 직전 설립된 원산학교를 들고 있다.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5) “……. 국왕은 내면적으로는 진보파였다. 그는 급진적이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국민들을 지도함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왕은 중국적인 독단사상과 보수주의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왕의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육영공원은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선교사 길모어의 글 가운데), 앞의 책에서 인용

6) 유영렬에 따르면 숭실학교는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대학인가를 받았지만 이미 1905년에 자체적으로 대학과정을 실시하였고 1906년 9월 신학기에 정식으로 대학부를 설치하였다. (유영렬,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 (서울: 한길사, 2000), p. 82, 84.

7) 이만열, 앞의 책, p. 201~202.

활지도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기준이나 풍습을 강조하여 서구 학문을 통한 신문물과 지식의 획득, 기독교정신을 통한 역사의식과 더불어 한국 전통문화 강조를 통한 민족에 대한 긍지가 교육되었던 것이다.⁸⁾ 이러한 교육정신과 풍토는 당시 외세에 의한 국가존망의 위기라는 민족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교는 교회와 함께 민족자존의 저항운동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초석이 된다.⁹⁾ 이만열 교수가 말한 바 “이것은 조국을 잃은 기독교학생들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역사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십자가였다.”¹⁰⁾

복음 수용 초기부터 민족자강과 민족자존의 역사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신앙적 전통을 지닌 한국 기독교에 정체성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7, 80년대의 폭발적인 성장의 곡선은 80년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주춤해 지더니 90년대 이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 한국기독교의 교세성장이 정체된 이유 가운데 민주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된 점과 다원적 여가 활동의 확장과 같은 현상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1990년 이후로 천주교의 교세가 꾸준히 증가하

8)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이만열, 앞의 책 (강조는 원저자), 203쪽.

9) 1896년 배재학당을 모체로 결성된 협성회는 토론회를 통해 독립, 민권, 자강의식을 젊은 층에 고취시킨 한국근대학생운동의 효시이자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 1919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은 동경에 유학 중인 기독교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같은 해 거사된 3.1 운동의 중심축을 이룬 것도 기독교학교 학생, 교사들이었다. 이만열, 앞의 책, p.243

10) 이만열, 앞의 책, p. 250.

11) 광창대는 한국개신교의 최근 교세성장률은 1989년 9.0% 1990년 5.8%, 1991년 3.9%, 1992년 0.6%, 1993년 -4%이라고 그의 논문〈최근 한국 개신교의 교세 감소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논문집, 2003).

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급변하는 사회 변동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이 보다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¹²⁾

광창대는 한국 기독교의 사회정치적 보수주의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침묵하거나 정부의 견해에 동조하는 일관성을 보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사회적 공신력 상실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¹³⁾ 뿐만 아니라 도시 중산층의 보수적 주류문화에 타협함으로써 적응주의(accommodationism)의 노선을 취하고 한국의 근대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역기능을 비판하는 선지자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부인하기 어려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용된 지 이제 100년이 지나고 또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만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가 행하는 일상적 삶의 광장과 골방의 구체적인 살림살이가 궁핍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기독교 지식인들은 사회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는 자

12) 류대영은 그의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에서 기독교대 학설립동역회나 기학연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성격을 “유물론을 비롯한 각종 비성경적 세계관을 비판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원론적 가치관을 바로잡아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상황”에 대한 참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기독교와 역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18호, p. 45~46.

13) 광창대 교수는 양낙홍의 1993년 박사학위 논문인 〈Reformed social ethics and Korean churches〉(Fuller Theological Seminary, USA)를 인용하고 있다.

14) 노치준, 〈한국개신교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광창대,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리에 있으며 사상과 문화의 영역에서 선도적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구한 말 극심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인구 대비 1%가 채 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한 사실(史實) - 신분의 평등사상, 여성 해방, 인권 운동, 왜곡된 사회 구조에 대한 집단적 항거, 민족운동의 전개¹⁵⁾ -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무엇에 연유하는가?

Ⅲ. 축소와 확장

기독교는 인생의 전 국면을 포괄하는 세계관이며 성경은 실재의 존재 전체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의 진술이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구속의 대상은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복음은 개체적인 인간의 사고와 감정, 의지로 구성된 내면세계에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유화(privatization)와 영화(spiritualization)의 과정으로 퇴행하고 “영적인 능력이 물리적인 세계에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¹⁶⁾는 주장이 배제된 이원론적 경향이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깨닫고 피상적으로 선포하고 피상적으로 듣는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일반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길들여진 체제 내의 한 하부구조로 전락하고 있다.”¹⁷⁾ 손봉호 교수는 개인적

15) 김승태, “초기 기독교는 개혁의 선두주자였다”, 복음과상황 1993년 11월호, p. 27~31.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참조.

16) 레슬리 뉴비긴, <요한복음 강해> (서울: IVP, 2001), 홍병룡 역, p. 45.

17) 김희권, “요시아, 마르틴 루터, 그리고 양심가책증” 기독교사상 2002년 10월호.

인 영역에서조차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⁸⁾

‘기독인’ 혹은 ‘그리스도인’의 어휘 문법적 구조는 ‘기독’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정적 기능을 하는 표현이 사람(人)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그 의미의 범주가 ‘사람’의 의미보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대학’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의 범주가 ‘대학’의 의미보다 역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기독(基督)’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1:3).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1:2). 우주의 만물(萬物)의 창조주이시며 만사(萬事)의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기독인’과 그분이 주인 되시는 ‘대학’을 가리키는 ‘기독교 대학’은 어휘 문법적 구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이며 하위 문화적 기능을 하는 존재일 수 없으며, 기독교 관련 사역 단체와 제도적 교회에 한정된 직능을 위한 준비와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람’과 ‘대학’의 원형적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기독인이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보편적인 의식과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룩한 확장”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기독교 대학이란 “거룩한 확장자”(sanctified extender)로서 사람이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신앙과 학문, 신앙과 문화를 “창조적이고

18) 손봉호 교수는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치중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무관심하다는 견해를 “매우 관대한” 평가라고 보고 실제로는 수직적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증거로 사회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원기의 “한국기독교와 윤리의식”에 대한 논평, p. 174.

능동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것이다. 알갭게도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기독교인과 기독교대학의 원형적인 의미가 아닌 표면적인 어휘 문법적 구조를 긍정하고 있다.

마가복음서 8장을 보면 주께서 두 번 안수하여 눈을 뜨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건은 하나님(天)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보는 것”으로 말한다. 눈을 뜬 소경은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人)을 알아 본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나무들”처럼 보인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비로소 그는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여 “만물을 밝히 보게” 된다. 사람과 사물을 어느 특정한 한가지로 환원하여 부분적으로 파악하던 것이 확장되어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통전적으로 (wholistically) - 예컨대 사람의 경우 “공동체 속의 육체-영혼 (a body soul in community)”¹⁹⁾으로 - 이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해한다면 바른 섬김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신앙을 회복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실재 의식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축소된 기독교는 복음의 풍성한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창조, 타락, 회복의 실재에 구체적으로 닿아있지 않으면 -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인식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 자기 중심성,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되어 버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니버는 그의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종합주의자들의 오류를 언급하면서 문화와 사회제도에는 분명히 항구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시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하부구조를 근본적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²⁰⁾ 오늘 한국적 상황에서 “복음주의적” 통합론자들이 학문과 신앙, 문화와 신앙의 통합을 말

19)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0)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기독교서회, 2002), 김재준 역, p. 183.

하면서 정작 인간 상황과 문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익숙한 체제의 수호나 습관의 관성의 유지를 추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피상적이고 치우친 이해는 창조와 타락의 실재가 뒤섞여 있는 생활세계의 중의성(ambiguity)을 꿰뚫어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 대부분 자기 중심적 환원론에 귀착되고 만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교와 사역은 포괄적 사명이지만 해외선교와 교회사역은 구체적 소명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개개인에게 회심케 하며 사회 전체와 삶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형성하는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창조세계 전체와 관련지어진다.²¹⁾

폴 스티븐스는 데이빗 보쉬의 Transforming mission의 개념을 원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고, 인간 및 창조세계와 관련되며, 현세적이면서도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재화와 예방의 특징을 둘 다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선포(케리그마)와 봉사(디아코니아)와 교제(코이노니아)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²⁾

멜바 맥가이가 지적한 바 있는 복음전도와 사회활동간의 관계를 규명할 때 발생하는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 즉, 양자를 혼동하여 복음전도를 사회활동으로, 사회활동을 복음전도로 오해하는 오류 및 양자를

21) 폴 스티븐스,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IVP, 2002), 홍병룡역, p. 243~244.

22) 폴 스티븐스, 앞의 책, p. 244.

비성경적으로 구별하여 복음전도는 영적이고 영원의 영역에 속하며 사회활동은 일시적이고 육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이원론적 오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편향적으로 이해하여 전적으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할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복음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복음의 본질적, 내재적 요소이므로 복음의 선포는 구두적 행사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²³⁾

한국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대학의 소명은 신앙적 관점으로 학문함 - 학문과 신앙의 통합 - 이라는 내포적(내재적) 의미가 실재의식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외연을 전개해 나가는 그것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실재의식’을 상실하고 있다. 그 증상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조와 체제 상의 거대한 불공정을 외면한 채, 담론의 외피만을 전경화해서 현실의 지형과 그 역학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태도야말로 힘의 논리에 기생하는 관념적 지식인의 오래 묵은 관성이다”라는 지적²⁴⁾에 과연 이 땅의 지식인들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지식인들이 자유로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이클 그리피스 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 이상의 구원을 망각하고 종교적 개인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개인과 더불어 전체로서의 새 사회(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⁵⁾

23) 멜바 맥가이, “복음전도와 사회활동” (서울: IVP, 1983), <기독교와 사회참여>, p. 122~123.

24) 김상철, “지식인들의 지식인 - 강준만론”, <비평과 전망> 제4호, 2001.

25) 마이클 그리피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IVP, 1992), 권영석 역, p. 31.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은 실재의식을 회복하는 전위로서 작동하므로 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이 기존의 대학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형식적이며 기관적 차원에서 기독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과정의 명시적 설치와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교과과정외 (extracurricular) 프로그램의 시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과 운동에 있어서 그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기독교 대학과 기독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 차별성의 담론을 형식과 내용을 혼동하는 가운데 진행시키는 것이다. 마치 일부 기독인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혼동하여 서로 환원시키거나 대치시키고 혹은 성숙 이원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와 교육 혹은 연구와 봉사/운동을 이해함에 있어 그 관계를 길항적으로 보거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순수한 신앙의 안티테제로 받아들이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기독교 대학은 마땅히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비전의 기지(基地)가 되어야 한다.

IV.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으로서 기독 대학

기독 신앙적 관점으로 학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살피고 계신 피조 세계의 실재를 창조-타락-회복의 성경적 패러다임을 통해 살피므로 구조와 방향의 관계를 밝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죄로 인한 왜곡과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삶

과 살림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지식 (know-how)과 목적의식 (know-what) 그리고 까닭(know-why)까지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그러한 소명의 에이전트요 (학원에서의) 가시적 교회 (Ecclesia visibilis)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삶의 전 영역에서 감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인간 활동의 모든 부면에 침투하는 누룩이다.²⁶⁾ 도이베르트는 일찌기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의 시간 내적 계시는 우리들의 시간 내적 인간실존의 모두 사회적 모든 구조들을 망라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인식론적 담론과 실제적 운동의 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이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어떤 공적 견해, 사회문화, 그리고 개인이나 학교, 교회나 대학, 회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전해지기” 때문이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지식인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을 삶의 제 영역에서 나타내어야 할 역사적이며 신앙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지식인들의 시선은 마치 사람들을 걸어 다니는 나무들로 보았던, 눈을 떴으되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체제와 이념의 역기능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몸짓보다는 마치 자본주의적 체제 유지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것처럼 지극히 물역사적인 수구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복음적 본질을 바탕으로 작금의 구체적인 사회정치적이며 문화적 상황을 해석하고 가치를

26) 멜바 맥가이, “복음전도와 사회활동” (서울: IVP, 1983), 〈기독교와 사회참여〉, p. 128~129.

27)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p. 39.

부여하는 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이익의 향배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주변세력으로 머물렀던 경험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담론의 비판과 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⁸⁾ 레슬리 뉴비긴의 말을 빌리면, “역사를 의미있게 만드는 비역사, 시간을 의미있게 하는 무한, 인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²⁹⁾이 모든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스스로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신 놀라운 이야기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를 통하여 듣고 보았음에도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땅”에서 내부적 망명객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관념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아니라 실재적이며(realistic) 구체적인 ‘세상’으로 – 삶의 터전으로서 –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의 자기인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명백한 갈등에 대해 숙명론적 접근을 하거나 포괄적인 경건으로 주의를 돌리므로 문제 자체로부터 초점을 옮기는 것도, 혹은 ‘현실’의 박피(薄皮) 속으로 은거하여 그 어떤 비판이나 변화도 허용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바른 길은 아닐 것이다.

박영신은 그의 “기독교 대학의 선교적 소명” 강연에서 기독교 학문 공동체는 보다 깊은 수준에서 오늘의 문명이 갖고 있는 자기 충족성의 믿음을 도전하고 그 문명의 틀에 예속되어 있는 대학을 향하여 윤리 및 지

28) 최장집은 그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02)에서 “민주주의가 토착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제도적 형식만 들여온 필연적 결과 그 내용을 채울 역사적, 정신적, 이념적 면을 결여하고 있는 (p. 58)”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근에 한동대에서 있었던 그의 강연 “민주화의 특성들과 그 귀결 – 한국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민주화 이후의 지배적 담론들로서 “통합의 이데올로기”, “도덕주의적 담론”, “전문기술(관료)주의”, “경제주의”를 탈정치화의 요인으로 거론한 바 있다.

29)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서울:기독교서회, 2002), 김재준 역, p. 252.

성의 감수성을 발휘하여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의 문명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역사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³⁰⁾ 그는 구체적인 예로서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의식 아래로 함몰되고 만 것에 의문을 던지고 우리 한국사회가 물량 차원의 사유와 가치 지향성을 담고 있는 경제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대학은 오늘의 문명과 맞대결하는 “문화투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³¹⁾ 그의 말은 기독교 대학이 구체적인 사회정치적이며 문화적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의 장(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적 균형감각³²⁾과 실재의식을 상당부분 결여하고 있는 현 한국적 상황에서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김녕은 작금의 한국적 상황을 정부의 형태는 민주주의이지만 생활양식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질서를 권위주의적으로 특징지은 ‘문화적 결정 요인들’ - 유교문화와 권위주의, 기회주의와 사대의식, 조급성과 폭력주의,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 불신의식, 혼란 콤플렉스와 안정선호, 안보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 파벌주의와 정치 균열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³³⁾ 예수 그리스

30) 박영신,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소명(1): 학문 공동체의 관심 세계에 대한 생각 하나”, 〈한동기독교세계관대회2002자료집: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소명〉, P. 9~12.

31) 박영신, 앞의 글, p. 11, 13.

32) 예수원 설립자인 고(故) 아처 토레이는 ‘온전한 복음’에는 영혼 구원과 함께 공동체와 경제의 측면을 같이 담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의 책 〈신학과 사회〉 (서울: CUP, 1994 참조).

33) 김녕,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 시민 교육”, 〈현상과 인식〉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1 봄/여름호), p. 50~51.

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 역동했던 “이중의 운동”³⁴⁾ -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하나님 - 의 실재를 아는 이들이 살아내야 할 과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 과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실재로 체험하게 하는 은총의 집인 셈이다.

V. 두 눈으로 보는 대학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입술로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래가 들어있다”³⁵⁾

기독교적 성격을 표방했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전이현상을 연구한 바 있는 조지 마스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9세기 당시 기독교가 실용적인 도덕이나 종교적 감성만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주류과학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근대성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균형있게 통제할 수 있는 지적인 신학이나 교육의 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대학 구성원들의 담론 가운데 새만금 갯벌, 양주 여중생 압사사건과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문제, 북핵 위기와 민족 분단 문제, 결식아동과 입시중심의 파행적 교육에 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

34)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기독교서회, 2002), 김재준 역, p. 42~43.

35)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서울: 종로서적, 1987), p. 18.

36) 조셉 애플야드, “조지 마스텐의 〈미국대학의 영혼〉” 〈한국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서울: 백석출판사, 백석저널 창간호 2002 봄), 장동민 역, p. 343.

엇인가? 지난 2003년 한동대 총학생회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미국의 대(對)이라크 전쟁이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와 더불어 성조기를 내린 적이 있다. 국제법률대학원의 미국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절차적 부당성을 앞세워 전자우편으로 항의문을 발송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A4 용지로 두 페이지에 달하는 항의문 가운데 그 전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것이다.³⁷⁾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논리를 제시하는 글 속에 보다 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논의는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 세계관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 소위 ‘기독교 동네관’의 관점(perspective)을 말하는 일종의 ‘축소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는다.

또한 기독교 대학이 사회 공동체에서 그 본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제자도(discipleship), 학문정신(scholarship), 형제애

37) “한동대학교 제8기 학생회가 이라크 전에 대한 투표 실시에 관하여 공지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에, 캠퍼스 내에서의 국기를 번칙운용하기로 한 일방적 결정은 대학당국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기에, 또한 더 나아가 국기를 이용한 반전시위는 그 표적이 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기에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사담 후세인을 겨냥한 전쟁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견해차가 있겠지만 표적이 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그 중오를 표출하는 것으로 반전시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 될 수 없습니다. 국기는 각 나라와 정책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그 국민들 뒤를 받쳐주는 이념과 그들이 견뎌 낸 투쟁이 그 국가가 나타내는 더 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동대학 학생회에서 국기를 내린 것은 미국, 영국, 호주 국민들의 사상과 투쟁을 비방하고 조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총학생회의 이러한 행위와는 반대로 자유를 찬양하는 많은 이라크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일자로 발송된 “한동대학 공동체에 보내는 공개서한” 중에서 인용한 것임. (밀줄 친 부분에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견해 정도로 간주하고, “오히려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이라크 사람들을 언급하므로 간접적으로 정당한 전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은 그러한 견해가 “미국적”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brotherhood)가 상호간 작동해야만 한다. 제자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과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록과 경건이 나타나도록 그를 배우고 본받는 것을 말하며 학문정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적 관점으로 학문을 수행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것³⁸⁾을 말하며, 형제애는 가시적 교회(ecclesia visibilis)로서 기독교 대학(학원에서의 교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인적 차원의 삶의 개체적인 형식을 극복하고 공동체성(togetherness)을 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자도가 결핍된 형제애는 적당한 정도로 배분된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봉당(朋黨, clique)으로 머물게 되어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형성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a creative few)가 될 수 없다. 제자도가 결핍된 학문정신은 학문지상주의의 독단적 경향성에 경도되어 개인적 고고함을 자랑하는 이른바 도학적(道學的) 모습을 갖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공동체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입(engagement)과 헌신(commitment)은 불가능하여 엘리트주의의 아류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문정신이 결핍된 제자도는 문제와 사안을 해결하려는 열정은 있을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피상성과 환원성에 매몰되기가 쉬어 현실적인 지형 변화에 아무런 권능도 행사할 수 없다. 형제애가 부재한 제자도나 학문정신은 본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성을 보지 못하여 그의 신앙과 학문은 개인적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한 장(場)으로 전락될 공산(公算)이 크고 그 자체가 이미

38) 강영안 교수는 기독교수를 죄를 통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연구와 교육의 섬김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논문 “기독교수는 누구인가?” 〈한국기독교대학의 정체성〉(서울: 백석출판사, 백석저널 창간호 2002 봄), p. 16.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된다.³⁹⁾

제자도는 기독교대학의 영혼의 닻과 같고 학문정신은 기독교대학의 정신의 노(櫓)와 같으며 형제애는 제자도와 학문정신을 이어주는 옷의 술기와 같다. 소위 “기독교” 대학은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은 희귀한 우리의 박약한 현실 속에서 방황과 안주를 거부하며 “분리와 정복, 지배와 조작”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온전한 타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와 경험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고” 위치하신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아는 은혜 가운데 “자신과 타인,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데 얹혀 있는 저 광대한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⁴⁰⁾을 덧입고 이중적 수고 -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일들에 주의를 기울임 - 을 통해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삶(생명) 사이에 실재적 왕래”⁴¹⁾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마치며

유럽의 문예부흥, 종교개혁, 산업혁명도 대학에서 싹트었으며 오늘날 근대과학문명도 대학이 그 요람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캠프리지 대학이 1630년대의 보수적인 아르미니안주의와 1640년대의 급진적

39) 파커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0), 이종태 역, Ch. 5 참조 (p. 107). 46) G. Marsden, 「기독교적 학문연구 @ 현대 학문 세계」, 23.

40) 앞의 책, p. 33.

41) 레슬리 뉴비긴, 〈레슬리 뉴비긴의 요한복음 강해〉 (서울: IVP, 2001), 홍병룡 역, p. 44.

인 청교도주의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경험하는 중심부에 있었던 것도 대학이 지닌 중요성⁴²⁾ 때문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⁴³⁾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 대학의 의미는 실재 의식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된다. 보이는 물리적 우주만이 실재(reality)의 전부라고 말하는 유물론적 자연주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요 세계의 존재와 구조는 인간의식의 구성적 반영이라고 이해하는 계몽주의적 주관주의(Enlightenment subjectivism) 혹은 창조적 반 실재론(creative anti-realism),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과 일관성을 부정하는 상대주의(relativism)가 맹위를 떨치는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변혁적 은혜를 의지하여 제 학문 분야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관된 전체의 부분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찬양(闡揚)하고 제 학문 내에서 구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계발하므로 획득된, 존 뉴맨이 말한 바 ‘지성의 참된 확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삶의 영역과 문화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실재로 경험케 하는 것이다.⁴⁴⁾ 이 소명에 대한 응답은 이백여 개의 대학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 상황에서 왜 기독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서 마땅한 기독대학의 “존재에의 찬성”

42) 김중락, “잉글랜드 혁명과 케임브리지 대학”,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서울: 한길사, 2000), p. 346.

43) 김호일, “식민지 시기 대학설립운동의 몸부림”, 앞의 책, p. 112, 123.

44) 필자가 최근에 만난 국내 학자들의 저작 가운데, 김두식의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서울: 도서출판 뉴스앤조이, 2002), 김준형의 “국제정치의 근본주의 현상과 한반도 평화” (2003, 백석저널에 게재 예정), 류대영의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국운의 정원제사법시험제도와 법률가 양성제도를 포함한 사법개혁에 관한 견해를 제기한 논문 등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보편적인 체계 안에서 각각의 개

(consent to Being)의 표시이다. 기독교대학은 한국적 상황에서 실재의 식을 회복하는 전위로서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의제 설정

인간조건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관계인 하나님(天), 세상(地), 사람(人)과 관계 지움에 있어 초월성과 내재성의 역동적 균형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독교 영성을 뿌리로 하는 대학만이 초월성에 몰입하고 내재성에 함몰되어 버린 이 시대의 훼손된 문명을 향하여 사자후를 토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기독교는 사람됨의 회복이다.⁴⁵⁾ 그러므로 삶의 전경(全景)과 그것의 일상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신앙은 그 만큼 덜 기독교적이다. 현실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종주(縱走)할 수 있는 강고(強固)한 이념적 무장과 실천적 전략을 확보하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그리스도 중심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소명이다.

“(인간의) 실존이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신뢰이며 자아란 우리 뜻대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초월적인 무엇이 [하나님]이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며... 생명은 나의 몸을 방문한 무엇으로 하나의 초월적인 대부(貸付)다”⁴⁶⁾

별 학문들이 제 위치에 서서 창조-타락-회복의 실재와의 정합성있는 접점을 확보하려는 희망스러운 빛을 보았다.

45) 한스 쿡(Hans Ku?ng)은 그의 〈그리스도인 됨에 관하여 (On being a Christian)〉라는 책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됨을 위하여”라고 말한다. 한스 쿡에게 그리스도인 됨은 사람됨의 성화된 변형(transfiguration)으로 이해된다. (Hans Ku?ng, On Being A Christian, (NY: Doubleday & Company, 1976), translated by Edward Quinn, p. 25)

46)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서울: 종로서적, 1987), p.42, 43.

윤상현 교수는

1962년 서울 출생.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외대 대학원에서 영어학으로 석사학위 취득,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통사론(syntax) 전공으로 언어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에서 언어학 개론, 언어와 철학 등을, 교양과정인 기초학부에서 다른 동역 교수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학문과 신앙을 강의하고 있음. 현재 한동 학문과신앙 연구소 소장과 성토모(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음.